"안락사, 진정한 '안락' 아니다"

日 조동종, 안락사 문제에 불교좌담회 열어

박영빈 객원기자

조동종 연구센터 연구원 스님들
안락사 · 존엄사 불교관점서 살펴
몸과 마음 편하려 선택한 안락사
불교서 말하는 안락과 거리 멀어



안락사에 대한 좌담회에서 의견을 밝힌 조동종 종합연구센터의 후루야마 스님(사진 왼쪽)과 우노 스님. 사진출처=JB프레스

최근 안락사 혹은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 과연 불교적인 입장에서 안락사는 가능한 일인지, 일본에서 특별한 좌담회가 열렸다. 지난 10월 24일 일본 언론사 'JB프레스'는 안락사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특별 보도했다.

일본 조동종 종합연구센터의 연구원 후루야마 켄이치 스님은 먼저 안락사에 대해서 "안락사란 그리스어로 '선한 죽음'을 뜻하는 Euthanasia를 번역한 말이다. '안락'이란 몸과 마음에 고통이 없이 즐거운 것을 뜻하고, 또 그 말은 불경에서 나온다. 행복을 뜻하는 범어 sukha가 그 어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안락사가 과연 '편안하고 행복한 죽음'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거듭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후루야마 스님은 "불교의 안락은 단지 심신의 즐거움이 아닌, 수행의 결과인 깨달음의 경지에서 오는 상태를 말한다. 단순히 고통이 없음을 안락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며 "불교의 안락이라는 입장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맞이하는 죽음을 안락사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후루야마 스님은 이어 "하지만 일방적으로 '안락사는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 전에 죽음을 맞이한 이가 자신에게 무엇이 남았는지, 어떤 해야 할 것이 있는지는 생각지 않고 단지 '몸과 마음이 편안한 죽음'만을 바라고 안락사를 택하는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신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 가운데, 존엄하게 죽고자 존엄사의 형태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동 연구소의 우노 젠치 스님은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지기 전이나 상태가 심각해지기 전, 가족이나 의사에게 존엄사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고 동의했다.

우노 스님은 "자신의 자유의지와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선택은 분명 의미와 가치가 있다"며 최근 이 같은 풍조가 강해지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불교에서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활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평등하게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안락사라는 죽음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삶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노 스님은 "선가에는 '100세를 살아도 하루 좌선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단 한 순간이라도 삶속에서의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시간'을 찾은 것이다. 죽음을 논하기 전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먼저 돌아보는 것은 어떤가"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좌담회에서 '주변에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아 안락사를 선택하는 일이 자주 보인다'는 질문에 이르자 두 스님은 "주변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다 해도 그 죽음을 마치 가치 높은 것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루야마 스님은 "생명에 대해서 '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며 마치 자신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인연법으로 보자면 한 사람의 생명 안에는 가족, 친척, 친구, 공동체가 모두 들어 있다"며 "거듭 강조하지만, 단지 '편안한 죽음'만을 생각해 가볍게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두 스님은 "안락이란 몸과 마음의 편안함이 아닌, 삶과 죽음이 함께하는 그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죽어서 좋다면, 반대로 살아서 좋은 것도 있는 것"이라며 단지 삶과 죽음이라는 양 단적인 선택만을 바라보지 말 것을 끝으로 당부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잃어버린 9C '쌍둥이 사원' 터 찾다

日 교토서 도지 사원 '자매격' 사이지 사원 터 발견

일본 교토시(市)의 한 사찰 터에서 9세기 법당과 5층 석탑 석조 기반이 발견됐다.

지역 당국은 10월 28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해당 구조물은 796년에 현존하는 도지(To-ji) 사원과 함께 세워진 사이지(Sai-ji) 사원의 일부로 추정된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밝혔다. 도지 사원은 헤이안 시대 귀족에 의해 건립된 후 일본 진언종의 창시자 코보 대사가 총본산 건물로 쓰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199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부지는 도지 사원의 '자매' 격인 사이지 사원의 실제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견"이라며 "사이지 사원은 헤이안 시대의 대표적 건축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도지'는 '동쪽'을, '사이지'는 '서쪽'을 의미해 두 사찰은 일본사에서 '자매 사찰'로 여겨져 왔다.

시에 따르면 사이지 사원의 부지 유적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이지 사원은 990년 큰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고, 가마쿠라 시대(1185-1333) 중 1233년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5층 석탑마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진다.

고고학자들은 건축물의 위치와 규모, 추정 건축 날짜 등을 기준으로 "이번에 발견된 부지에 5층 석탑의 기초석이 있다"고 추정했다. "사이지 사원과 도지 사원이 헤이안쿄(현재의 교토 시의 몇몇 예전 이름 중 하나) 성문을 기준으로 각각 서쪽과 동쪽에 대칭적으로 위치했다"는 역사적 기록과 현존하는 도지 사원 모습 등을 토대로 사이지 사원 내 5층 석탑의 위치를 추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발굴 관계자는 "사이지 사원의 탑은 도지 사원의 5층 탑 바로 맞은편에 대칭 꼴로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일본 교토 시(市)에서 9세기에 건축된 사이지 사원의 법당과 5층 석탑 석조 기반이 발견됐다.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日 온라인 스님 파견, 끝내 사업 중단

종교 상품화 지적 잇달아
불교계 앞다퉈 환영입장
소비자는 투명성에 만족
수요 해소할 대안 찾아야



논란이 되어 왔던 '온라인 스님파견' 서비스 상품. 사진출처=산케이 비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승려를 파견하던 일본의 '온라인 스님 파견'이 끝내 중단됐다. 10월 25일, 일본의 '산케이 비즈' '교토신문' 등 주요 언론들이 이 소식을 일제히 보도한 가운데, 향후 불교계의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10월 24일 일본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아마존 재팬'을 통해 스님을 파견하는 의뢰를 받아온 장의 전문회사 '요리소우'는 온라인 스님 파견 사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스님 파견은 지난 2013년 요리소우에서 시작해 2015년엔 아마존 재팬 등 대형 온라인 쇼핑 포털을 이용해 제공해 왔다.

출가자와 불교의례를 마치 상품처럼 취급한다는 이미지로 인해 해당 사업은 초기부터 불교계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불교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우카이 히데노리 스님은 "이번 철회는 불교를 '상품'으로 이용하는 데에 대한 전 일본불교회 등 불교계 각지의 거듭된 항의와 상호 간의 충분한 의사전달의 끝에 이뤄낸 결과"라고 전했다.

요리소우 측은 "인터넷 쇼핑 사이트 등을 이용한 결과, 본래의 의지를 충분히 전하지 못했을 뿐더러 불교의 의의에 대한 오해를 광범위하게 낳는 결과가 발생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본 사업을 종료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충분히 문제점을 보완해 새로운 서비스를 곧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일본불교회의 사무총장 도마츠 요시하루 스님은 "올해 봄부터 사측과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이 진행됐다. 장의절차에서는 천도재도 중요하지만 남은 유가족 위로를 중점으로 해야 하는 만큼, 회사 측의 방침변경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불교의례를 상품화했다는 문제에 더해, 실제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에 속해 몇 차례 파견된 한 스님은 "파견승려로 등록할 당시 매우 허술한 체계에 놀랐다. 특정 종단의 승려증 사본과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전화면접으로 등록이 끝났다"며 이용자로부터 항의가 상당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용자가 많았던 이유에 대해 스님은 "천도재나 기제사가 끝난 후 스님에게 주는 보시금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른바 '정성껏 보시' 형태여서 신도들이 부담을 느꼈다"며 "반면 온라인으로 제공된 서비스는 각 의례의 내용, 시간, 횟수 등에 따라 명확한 금액이 책정돼 투명해 인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카이 히데노리 스님은 "보시금의 문제나 승려의 자격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승려 파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며 해당 사안에 불교계와 장의업계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얀마 성지순례하던 불자 15명 사망

축제 후 돌아오다 참변, 절벽 아래로 트럭 추락

미얀마에서 성지순례를 하던 불자 25명이 트럭 사고로 숨지거나 다쳤다.

10월 30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불교 성지순례자들이 트럭 짐칸에 타고 미얀마 남부 샨주(州) 욘 타웅 마을 인근을 이동하던 중 300m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절벽의 총 높이는 600m에 달하며, 이 사고로 최소 1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자들은 북서 지역의 불교 축제에 참석한 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전해진다. 불교도가 주를 이루는 미얀마에서는 인근 지역 불교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한 마을 사람끼리 트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낡은 차량을 이용하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사고현장을 수습 중인 소방대원과 경찰들. 사진출처=이라와디닷컴

경찰 당국은 "트럭이 커브길을 지날 때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AFP 통신 등에 설명했다.

현장 감식 결과 15명은 이미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10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희생자 중에는 6세, 9세 등 어린 아이들이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빛나는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盛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수리기능 8826호 양학모.양희곤 父子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